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이상현(010-4300-5441)

e-mail

cpla@minjoo.kr

“가난과 고통을 경험한 후보, 약자를 위한 정치 펼칠 인물” 한국노총 각급 조직,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어져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책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시니어노조,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정치로 복지 향상에 힘쓰자!”

한국노총 전국시니어노동조합(위원장 이호승)은 한국산재장애인위원회, 대한난청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등과 함께 5월 27일(화) 오후 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 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이들 단체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학업을 이어가 사법시험에 합격, 민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며, “그 누구보다 서민과 약자의 삶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젊은 시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지금 노년이 되어 여전히 가난과 질병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유한 계층을 위한 정책에만 집중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복지와 노동권, 약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이재명 후보는 산업재해로 장애를 겪은 경험까지 있는 만큼 누구보다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정치로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교원·공무원 기본권 실천단」,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시대적 요구다!”

5월 27일(화)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에서는 경남지역 퇴직 교사·공무원, 학부모, 정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지지선언은 “공직사회의 침묵을 깨고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자는 실천적 외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천단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정치중립 의무 규정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행사 및 활동 전반은 공직자가 아닌 퇴직자, 시민 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및 공직사회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제는 현장 목소리가 국회로 가야 할 때”이고,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침묵은 다르다. 현장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호범 노동존중국민특보(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침묵을 강요당할수록 정책은 현실과 멀어지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직자의 처우개선과 정책개혁을 위한 실질적 제안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단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에서 퇴직공직자·퇴직교원·학부모·정책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지지선언 릴레이와 정책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및 공직사회 전반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연맹 한국농어촌공사노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공공연맹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은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에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은 5월12일 중앙위원회, 5월2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번 지지선언을 공식 의결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고 국민이 보호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최적의 후보”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노동존중선대위 위원장, 박홍배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김은식 위원장, 박주형 수석부위원장 등 24여 명의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편 정책 협약서에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민주화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공공 부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연맹의 핵심 과제가 담겼고, 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존중선대위 위원장 전현희)과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은식)이 협약을 체결했다.

김은식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도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진정한 노동 존중과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 협약이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농어촌의 미래를 동시에 개척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노동 존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주4.5일제 실천단장 겸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부본장인 박홍배 의원도 “기후위기로 식량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른 지금,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먹거리 안보는 한국농어촌공사노조 조합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입법과 예산,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율

성과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 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

첨부. 현장 사진.



▲한국노총 전국시니어 노조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경남지역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공공연맹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